



#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령화: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홍광철 세례자 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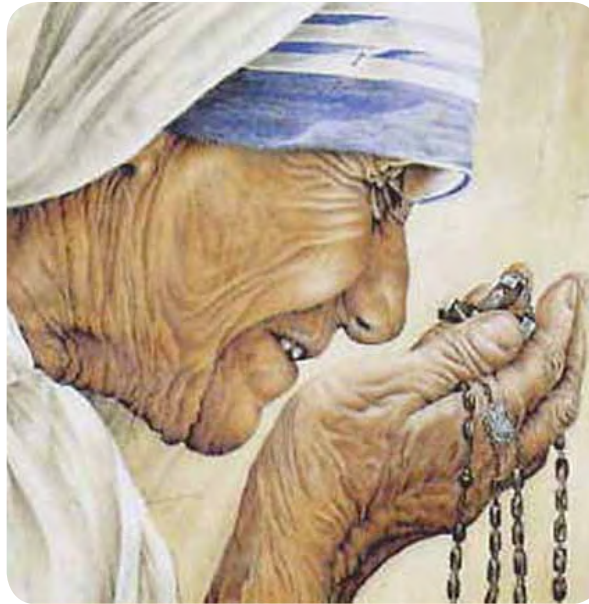
## 새해의 기도

● 저를 사랑하시어 새날을 허락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새해 첫날 주님의 크신 선물에 감사하며 올 한해를 주님께 봉헌하며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이다.

○ 주님! 올 해는 제가 제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을 기쁘게 해 주고,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며, 형제자매들을 시기질투 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일치하며, 배려와 양보를 몸에 간직하고, 사랑과 존경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주님! 올해는 제가 봉사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제 마음을 내어 놓고, 저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제 손과 발이 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 그 말씀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 주님! 올해는 아침저녁기도를 성실하게 바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 제가 신자임을 드러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 주님! 올해는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멋진 부모가 되고, 부모에게는 온전히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해 드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님! 올해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않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섬기는 제가 되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 주님! 올해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은총에 감사하며, 작은 것들 안에서 큰 기쁨을 얻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 주님! 새해 첫날 저의 굳은 결심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주님 앞에서 결심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제가 결심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미사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월	오전 10:00
수/목/금/토	오전 10:00
화/수/목/금	오후 7:30

### 성사 안내

환자 봉성체	매달 첫 목요일 오전
병자성사	구역장을 통해 신청
성체강복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예비신자교육	(주일) 오전 8: 20

### 학교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YG(고등부)	(주일) 오전 10:00
한국학교	(금) 오후 7:00 (토) 오전 9:30
안드레아 문화대학	(주일) 오후 1:00-4:00

# 2018년도 사목지표: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들

- 실천사항: ①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② 말씀을 실천하기  
③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오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생활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주님의 뜻을 실행하며, 모래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반석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도에는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생활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 1. 먼저 하루 한 장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여 봅시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께서 옆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내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루 한 장의 성경을 읽는 내가 되어 봅시다. 또한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는 가정에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두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마태7,21ㄱ)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7,21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하는 이들이 신앙인이고, 하고 싶다 하더라도 멈출 수 있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주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실천할 때 나는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곳은 하느님 나라가 됩니다.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있는 곳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 3. 세 번째로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르3,35). 또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요한13,1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13,35)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깊이 기도하며, 말씀을 실천해 나아갑시다. 그렇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십니다.

2018 1월 1일

본당신부 홍광철 세례자 요한

## 천주의 성모마리아(Theotokos) 대축일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해의 시작을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본받아, 성모님께서 가지신 믿음을 본받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생을 살아오신 그 모범”이 을 내 삶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오롯하게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날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그 믿음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성실하게 걸겠노라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 또한 성모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첫째,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

성모마리아는 성모영보(聖母領報)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1,28)라는 천사의 말씀에 마리아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1,38)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신앙 안에서 자신을 무조건 하느님께 내맡기셨으며 “주님의 종으로서 아드님의 구원 사업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복된 여인으로 공경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둘째, 주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신 분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던 성모님, 그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본다면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으며,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이들에게 충실한 길잡이가 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러기에 한해가 시작하는 날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성모 마리아가 자신의 온 생애를 하느님께 바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아마 가장 훌륭한 한해 계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흐를 것입니다.

오늘은 한해의 첫날이며, 교회는 이 첫날을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이날을 의무축일로 정하여 모든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한 해의 첫날을 교회가 성모님의 축일로 지내며 게다가 모든 신자들의 의무축일로 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성모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당신의 동정 품안에 예수님을 잉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엄청난 칭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기에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는 칭호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일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의

## 나의 가정은 성가정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천상의 음악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다음의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 ①~④까지의 숫자를 적어 보세요.

- 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
- ② 그렇게 할 때도 있다.
- ③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한다.
- ④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1. 가족은 하느님께서 묶어주시고, 맡겨주신 공동체이기에 서로 존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 )
2. 가족은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들이기에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 )
3. 가족은 서로 사소한 말에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 )
4. 가족은 상대방의 결점이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 )
5. 가족은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
6. 가족은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솔한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 )
7. 가족은 상대방을 내 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8.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어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 )
9.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 )
10.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배우고, 더 나은 가정을 꾸미기 위해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

점수 계산 법: 선택점수(①\*10점, ②\*7점, ③\*5점, ④\*3점)들의 합계 =?

80점 이상: 와 성가정을 이루셨군요?

70점 이상: 성가정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군요.

50점 이상: 좀 더 노력을 하셔야겠군요.

50점 이하: 노력 안하시지요?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